

나주시 귀농마을 조성...인구 유입·환경 개선 두토끼 잡는다

산포면 송림·산제, 문평면 서원마을 등 올 6곳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 빈집 정비 등 3년간 마을별 최대 20억 지원...·2029년까지 24곳 목표

나주시가 올해 산포면 송림·산제, 문평면 서원마을 등 6곳을 '귀농·귀촌 선도마을'로 선정·조성한다. 나주시는 민선 8기 공약 '농촌 거주자 정책' 지원의 하나로 올해 마을 6곳을 선정해 '귀농·귀촌 선도마을'로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귀농·귀촌 선도마을은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해마다 6곳씩 총 24곳 조성한다. 올해 선정된 마을은 산포면 송림·산제, 문평면 서원(동원2리), 남평읍 우진(우산 3리), 동강면 북용(북정3리), 공산면 송정(가송1리) 마을이다. 이 마을은 귀농·귀촌한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원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 환경 정비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을 유입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선도마을은 귀농·귀촌인, 원주민의 생활 편의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된다. 마을 기초기반시설 조성, 빈집 정비, 경관 개선,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진행한다. 정비된 빈집은 농촌 일손돕기 참여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귀농·귀촌 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기존 마을 만들기,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마을 단위 사업을 하나로 묶어 예산 중복투자를 막고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잦은 공사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크고 작은 생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나주시 측은 기대했다. 나주시는 자율 공모를 통해 귀촌·귀농 선도마을을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전체 가구의 10% 이상을 귀농·귀촌

세대로 확보할 수 있는 마을이다. 특히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수용 태세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해당 마을에는 2026년까지 3년간 마을별 최대 20억원의 사업비가 각각 지원된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귀농·귀촌 선도마을은 잠재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귀농·귀촌인 유입을 촉진하는 민선 8기 핵심 농정"이라며 "쾌적한 마을 경관 조성은 물론 귀농·귀촌 이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제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되살아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귀농·귀촌 선도마을을 조성 외에도 올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8억),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8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연 금리 1.5%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 주택 구입·신축 비용을 올상반기 20명에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해마다 6개 마을을 '귀농·귀촌 선도마을'로 선정해 기반시설 조성, 빈집 정비 등을 펼친다. 귀농·귀촌인의 임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빈집을 정비하는 모습. <나주시 제공>

장흥 선학동 호젓한 풍경, 세계 최고 관광마을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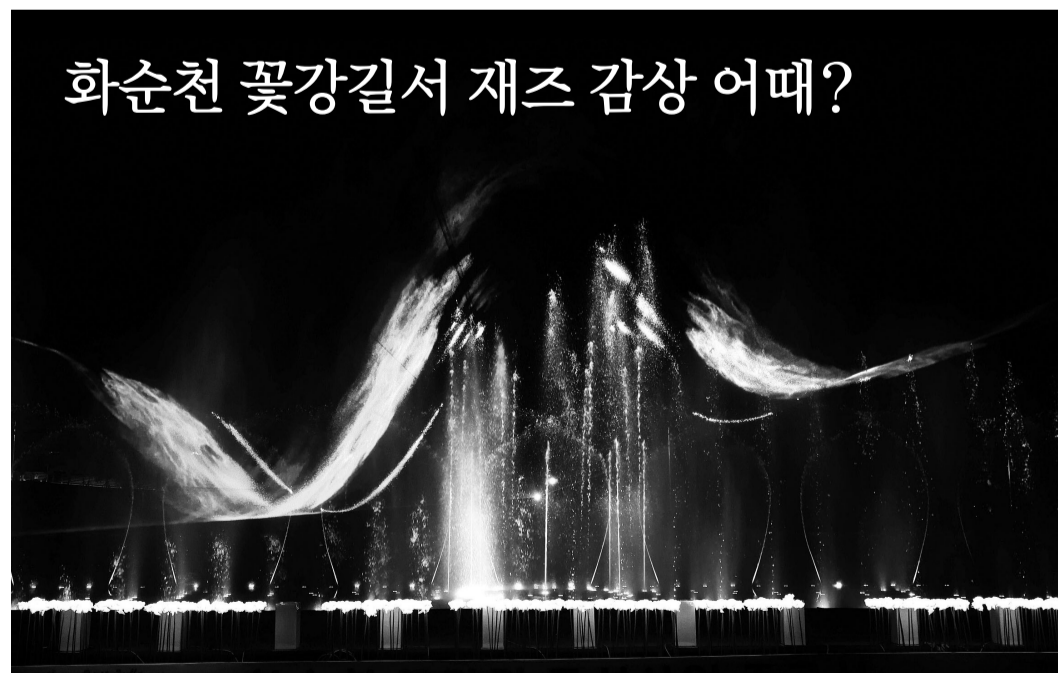
장흥군 회진면 선학동 마을이 올해 하반기 발표하는 '4회 유엔 투어리즘 최우수 관광마을'의 대한민국 대표 후보 마을에 선정됐다. 유채꽃이 만발한 선학동 마을의 봄 풍경. <장흥군 제공>

'유엔 투어리즘 최우수 관광마을' 장흥군, 한국 대표 후보 마을 선정 다음달 신청...9~10월 결과 발표

장흥 선학동 마을이 유엔(UN)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에 도전한다. 장흥군은 회진면 선학동 마을이 '4회 유엔 투어리즘 최우수 관광마을'의 대한민국 대표 후보 마을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유엔관광청(UN 투어리즘·옛 유엔세계관광기구)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개발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불균형 등 세계 공통

과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신안군과 화순군에 이어 장흥군이 세 번째로 '유엔 투어리즘 최우수 관광마을'에 도전한다. 선학동 마을은 현대문학의 거장 이청준 작가의 소설 '선학동나그네'의 배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원작으로 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천년학'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으로 유명하고, '문화관광기행특구' 지역답게 마을에는 문화길이 조성됐다. 지난 2007년부터는 '금빛·은빛 가득한 선학동 마을'이라는 마을 공식 소통 누리집을 만들어 마을 관련 소식과 발전 과정을 기록하며 마을을 알리

기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선학동 마을은 '전남 행복마을 만들기 마을경관 환경분야 최우수상', 한국관광공사 '봄 시즌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 SRT '올해 최고의 여행지 10곳' 등에 이름을 올렸다. 장흥군은 이달 초 현장 답사를 마치고 다음 달 말 유엔관광청에 최종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9~10월 중 발표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선학동 마을이 '유엔 투어리즘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되면 장흥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게 될 것"이라며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천 꽃강길 음악분수' 인근에서 오는 8~9일 오후 거리 공연이 펼쳐진다. 볼 커진 음악분수 모습. <화순군 제공>

8~9일 음악분수대 개막 공연

화순군은 최근 운영을 시작한 '화순천 꽃강길 음악분수대'를 지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8~9일 거리 공연 무대를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55분까지 '꽃강길 음악분수대' 2024시즌 개막 공연이 열린다.

이번 국악을 현대식으로 해석한 '퓨전 국악' 공연이 마련됐다. 9일 같은 시각에는 가벼운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재즈, 어쿠스틱 무대가 펼쳐진다. 화순군은 올해 꽃강길 음악분수대 운영 개시를 기념하기 위해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아이 낳기 좋은 장성 만들기 임신·출산 강좌·가족 심리치료

장성군 가족센터가 올해 임신·출산 공개강좌와 다문화가족 심리치료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새로 선보이는 사업은 ▲건강한 임신·출산 준비를 위한 산부인과 의사 공개강좌 ▲다문화가족 심리치료사업(푸드테라피 프로그램)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 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등이 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장성읍에 새로 건립 중인 '에스오씨(SOC)가족센터'가 완공되는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센터는 민선 8기 사업의 하나인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결혼이민자 취업 연계도 진행한다. 취업에 필요한 기초 소양교육부터 자격증 취득, 취업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일원화될 방침이다. 그밖에 기존에 시행해 왔던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 입학학교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예체능 분야 특화 교육사업 등도 이어간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모든 가정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맞춤 지원정책 추진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농림축산식품분야 981억 투입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농정발전' 농업인 의견 수렴

함평군이 최근 '2024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지원사업 등 농정발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농업인협회 단체장 등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올해 농림축산식품 주요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57개 사업 981억원을 상정해 심의·확정했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은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25년도 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 심의를 통해 2024년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별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대상자 우선순위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건의사항과 농정발전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시간을 마련했으며,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반영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심의 결과를 토대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고, 전남도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중점 사업을 집중 발굴·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농업인 단체와 심의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심의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으로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심의 의결된 보조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경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고향사랑기부금 1위 전국 이벤트

3월 한 달 답례품 추가 증정...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전국 1위를 기록한 담양군이 이달 한 달 동안 기념행사 '전국 1위 감사함니담'을 진행한다. 4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담양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모두 22억4300만원으로,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담양군은 지속적인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이달 한 달간 기부 답례품 추가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담양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하면 행사에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뽑힌 30명에게는 3만원 상당 담양군 인기 답례품이 주어진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 연인 등 5명이 조를 짜 1인당 10만원 이상 담양군에 기부한 후 참여를 인증해도 답례품을 더 받을 수 있다. 선착순 20개 팀에게는 담양군 인기 답례품을 무

작위 발송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시·군)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된다. 자치단체는 기부 금액의 30% 안까지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는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온라인), 또는 전국 농축협(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현재 담양군은 1년간 텃밭을 분양받아 농촌 체험을 하는 '텃밭 가꾸기' 상품을 답례품으로 추가하는 등 담양군의 고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도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배 지켜라" 과수화상병 예방 총력

시, 8억6000만원 투입...방재단 운영·약제 공급 앞당겨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과일나무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세균성 질병인 '과수화상병' 예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번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최우선으로 주기적인 예찰과 예방 가지 제거를 위한 전문적인 지도, 약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배,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세균성 질병이다. 발병하면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며 심할 경우 나무 전체가 죽게 된다. 나주시는 올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방재단 운영, 약제 공급 등에 8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집중관리 기간인 지난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동절기 예방을 위한 현장 예찰 안내에 집중하고 있으며 화상병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예찰, 방재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방재단은 관내 과원 전체 면적 1713ha를 순회하며 선제적으로 병을 예찰하고 발병 의심 신고, 예방 조치 등 예방 조치를 지도한다. 농업기술센터는 화상병 예방 교육을 총 10회에 걸쳐 농업인 12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인상담소 등과 협력해 농가 예방 실천 요령 안내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평년 대비 따뜻한 겨울 날씨로 배, 사과의 휴면이 일찍 풀린 것을 감안해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 시기를 전년보다 열흘 앞당겨 오는 12일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약제는 지난해 연말 사전 신청한 농가 2226곳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3종의 약제를 선정, 나주배원에 농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통장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가에선 동계 1회, 개화기 2회에 걸쳐 약제별 사용 요령에 따라 살포하며 사용 후 빈 약제통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